

베트남 노동보호원 관계자 안전협회 방문



지난 11월 10일은 베트남 노동보호원의 Vu Manh Hung 이사, Nguyen The Cong 이사, Dang Dinh Tri 국제협력지원국장이 안전협회를 방문하였다.

이날 베트남 노동보호원 관계자 방문을 맞이한 이홍지 회장은 베트남의 안전문화정착을 위해 상호 정보 교류 및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원 교환과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또한, 베트남 노동보호원 관계자는 노동부, 안전공단을 비롯해 안전협회 관내 사업장인 삼성전자(주), 포스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도 함께 방문하였다.

한국전력공사 국·내외 맞춤형 연수교육 실시



한국전력공사는 현장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0명을 선발하여 자질향상을 위한 국·내외 맞춤형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안전협회와 함께 한 이번 맞춤형교육은 10월 23일부터 3일간 국내 골드웨이리콘도 연수장에서 안전관련 실무교육에 이어 일본의 녹십자전과 오사카 산업안전기술관, 후생노동성 중재방 방문 등 일본의 안전을 접할 수 있는 해외 견학을 지난 10월 27일부터 5일간 함께 가졌다.

한편, 안전협회는 해외 견학까지 추진하는 이번 맞춤형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업의 특성과 욕구 충족을 충분히 만족시킬 교육프로그램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윤임중)는 기념행사에 앞서 “21세기의 산업보건”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건강평가와 증진”과 관련하여 박정일 카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장이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한편, 기념행사에서는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을 비롯해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장 등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인사를 통해 보건협회 윤임중 회장은 “근로자들에게 희

망을 주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국제 안전보호구 및 안전제품 전시회 성황리에 마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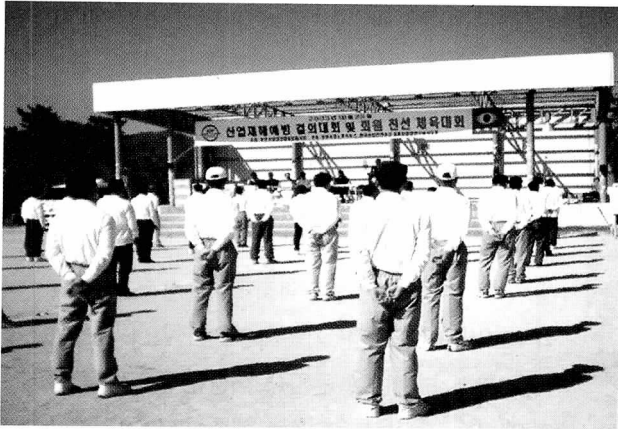


국내 최초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2003 국제안전보호구 및 안전제품 전시회”가 지난 11월 20일 개막을 시작으로 3일간 COEX 대서양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송봉근 노동부 산업안전국장,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 안전전문기관협의회 김용수 회장 등 각계 단체장의 참석과 함께 개최된 이날 행사는 한국보호구협회가 주관하고 노동부, 안전협회, 보건협회 등이 후원한 전시회이다.

한편, 이번 전시회 기간동안 국내·외 보호구 제조업체 등 50여 안전관련 업체가 참가하였고, 국내 안전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창원지회, 산업재해예방 결의대회 및 체육행사 가져



안전협회 창원지회는 지난 10월 23일 창원시 두대동 체육공원에서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관내 사업장 안전관계자 100여명을 초청하여 산업재해예방결의대회 및 친선도모를 위한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은영(세광병원장) 지회장은 “사업체 안전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해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치료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협회 창원지회에서 관내 안전관계자들간의 정보교류와 유대관계 증진을 통한 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행사이다.

응급처치 및 산재처리 전문가과정 연수 개최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오색 그린야드 호텔 연수장에서는 제6차 응급처치 및 산재처리 전문가 연수교육이 있었다.

안전협회에서 시행한 이번 교육은 위급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이 개개인의 실습을 통해 전개되었다. 특히,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실무와 발생시 응급대처 방법과 응급상황시 수지침을 이용한 처치요령 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만족해 했다.

안산지회, 제2회 Love米 농촌사랑 마라톤대회 참가



안산지회 직원 전원은 지난 11월 9일(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남측광장에서 개최된 제2회 Love米 농촌사랑 마라톤대회에 참가하였다.

10km와 하프에 도전한 안산지회 직원 전원은 한명의 낙오자 없이 전직원이 골인지점까지 들어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번 마라톤대회는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심어주기 위해 개최된 대회이다.

산업안전규제완화 관련 노사정학 토론회 개최

지난 25일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안전보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규제완화 이후 산재예방 활동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에서 카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 정혜선 교수는 국내 최초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익 분석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산업재해로 기업의 부담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설명하였다. 이는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시행한 규제완화 조치가 질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완화보다 실적 위주의 양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과 경총에서는 지금까지 안전보건규제완화가 산업재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사유가 불분명하며, 정확하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정혜선 교수의 발표된 내용과 같은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성대 안전보건경영대학원 박두용 교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직접규제 복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100만인 서명 운동과 더불어 헌법소원제기, 산재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